

안녕하십니까?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안중입니다. 오늘 저는 교수협의회 후임회장 선출과 관련된 그동안의 교협 내의 논의결과와 향후 저의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와 일정에 관해서 학내 여러 교수님들에게 자세히 보고드리고 향후 저희 교협의 원만한 업무추진과 회장단의 인수인계에 여러 교수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원래 교협의 선출직 임원(회장 및 감사)은 대학의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봄 학기 총회에서 선출하여 2년간의 임기를 맡도록 되어 있었지만, 저는 전임 장호완 회장의 임기만료 후 한 학기 공백이 생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을 학기의 임시총회에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협의 가을 대토론회 준비와 여러 정책연구 사업의 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전임 회장이 시행한 사업을 후임회장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모순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의 정례회장단 회의에서 저는 회장직 사임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저희 교협에서는 이번 학기 중에 저의 후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도록 준비해온 바 있습니다.

동회장단회의에서는 현재 교협의 정관에 따라서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이재형 부회장님(자연대)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동위원회의 임무는 이번 학기의 이사회에 차기 교협회장 후보 (단수 또는 복수 후보)를 추천하는 데에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후보는 총회의 인준에 따라 차기 회장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조만간 동위원회에서 후임회장 추천에 관한 안내 말씀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학내 여러 교수님들께서는 저희 교협의 이러한 형편을 헤량하셔서 앞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차기 회장이 추천되고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5일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김안중